

宗筋의 部位와 機能에 관한 考察

¹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鍾鉉^{1,*}, 金度勳¹

A Study on the Substance and Function of Jonggeun(宗筋)

Kim Jong-hyun^{1,*}, Kim Do-Hoon¹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 : The explanations regarding the function, region, and related internal organ and meridian of Jonggeun as discovered in historical texts were studied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true concept of Jonggeun.

Method : Texts were searched to extract sentences that are related to Jonggeun, and these were used to categorize and analyze the area, related meridian and organ, function, and disease symptom. Thereafter, how Jonggeun affects the whole body and the regions of Jonggeun were contemplated.

Result & Conclusion : Jonggeun can be divided into what is related to sexual intercourse, and into sokgol and Ligigwan. Here, things related to sexual intercourse explains the function of penis arousal. The functions of Sokgol and Ligigwan signifies that they serve as the base points for the body when it exercises, and they cooperate with Chungmaek to provide blodo and vitality to body joints. There are two major differing opinions regarding the region of Jeonggeun. One explains that it exists within the genitalia, and the other sees fit to believe that it exists within small abdomen. Considering the functions of Sokgol and Ligigwan, it is right to view that Jonggeun exists around Gigahyeol, and the view limited to genitalia only considers Jonggeun around sexual intercourse.

Key words : Jonggeun, Geun, Chungmaek, sokgol, Ligigwan

* Corresponding Author: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1 August 2017), Revised(12 August 2017),

I. 序 論

宗筋은 인체의 부위를 가리키는 한의학 고유의 용어로 『黃帝內經』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宗’이 ‘오름’, ‘우두머리’, ‘근원’을 뜻하므로 宗筋은 ‘오름이 되는 筋’, 혹은 ‘근원이 되는 筋’이라 할 수 있으며 전신의 筋과 보다 넓게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인체 구조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 중 하나라 생각된다. 그러나 宗筋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역사와 중요성에 비하면 그에 관한 설명은 대부분 간략한 편이며, 때문에 개념과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주로 病機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루어졌을 뿐 직접적인 치료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이유가 아닌가 짐작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宗筋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한의과대학의 생리학 교과서¹⁾와 신개내과학 교과서²⁾에서도 宗筋에 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중국 학술논문 검색 웹인 CNKI에서도 ‘宗筋’으로 검색 가능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남성의 성기능과 관련된 병증 연구일 뿐 宗筋의 자체의 기능이나 속성을 연구한 바가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王琦는 宗筋의 生理에 영향을 미치는 經脈을 열거하고 그 관계를 설명했으며 病因에 따라 治法을 제시했다.³⁾ 하지만 病因과 治法을 분류하고 간략히 설명한 정도에 그쳤으며 宗筋의 기능이나 속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는 않았다. 蔡漁琴⁴⁾, 賈海驊⁵⁾도 宗筋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나 성기능과 관련한 병증을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언급한 것에 머물렀다. 그 외에

衝脈에 관한 연구에서 宗筋을 일부 언급한 경우가 보이는데 金成一⁶⁾과 林琪家⁷⁾는 衝脈의 生理를 논하면서 陽明이 宗筋에서 습한다는 『黃帝內經』의 문장과 주석들을 인용했다. 서적 중에는 남성 질환을 다룬 『中醫男科學』⁸⁾에서 陽痿, 遺精 같은 病證을 설명하면서 宗筋을 언급했으나 깊이 있게 탐구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는 소수의 병증에 한정되었으며 宗筋의 개념이나 속성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宗筋의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부위와 기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부위와 기능에 집중된 까닭은 宗筋이 신체 부위를 뜻하는 용어인 만큼 가리키는 부위에 대한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宗’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먼저 문헌에 나타난 宗筋 관련 문장을 검색하여 내용별로 분석했고, 그것을 토대로 宗筋이 일반적인 筋들과 달리 인체 전반에 작용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宗筋의 부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중 어떠한 견해가 宗筋의 기능적 속성에 부합하는지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宗筋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질환에 대해 탐구하며, 나아가 한의학의 人體觀을 이해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문헌 검색은 주로 『四庫全書』 DB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宗筋’으로 검색 가능한 모든 문장을 대상으로 삼았다. 거기에 『四庫全書』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의서와 기존 연구 논문에서 언급된 바 있는 문헌도 추가했다.⁹⁾ 또한 논의의 중심점이 되는 『黃帝內經』에 대해서는 앞선 검색 내용과 별개로 역대의 주

Accepted(24 August 2017)

- 1) 전국한의학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 2) 遺精과 陽痿 부분에서 『黃帝內經』의 宗筋 관련 문장들을 인용하기는 했으나 宗筋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다. (전국 한의과대학 신개내과학교실. 腎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11.)
- 3) 王琦. 宗筋論. 中華中醫藥雜誌. 21(10). 2006. pp.579-581.
- 4) 蔡漁琴. 通補奇經法治療男性宗筋病. 遼寧中醫雜誌. 10. 1989. pp.30-31.
- 5) 賈海驊. 外 2人. 陽痿“痰瘀互結, 毒損宗筋”理論思惟與創新.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19(4). 2013. pp.381-382.

- 6) 金成一, 宋春浩. 衝脈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7(2). 2000. pp.85-93.
- 7) 林琪家. 衝脈古代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8) 秦國政 主編. 中醫男科學. 三河市. 科學出版社. 2017. p.138, 155.
- 9) 『醫學入門』, 『東醫寶鑑』, 『臨證指南醫案』, 『中西匯通醫經精義』, 『類證治裁』, 『辨證錄』, 『羅氏會約醫鏡』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석서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취합한 검색 내용은 宗筋의 부위, 기능, 관련된 臟腑와 經絡, 病證으로 분류했으며 각각의 내용을 분석해 특이성이 있는 문장을 위주로 본론에 기술했다. 중복되는 내용은 가능한 최초의 문헌을 기준으로 채록했다.

II. 本論

宗筋에 관한 문헌의 내용들은 대부분 『黃帝內經』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론의 서두에서는 『黃帝內經』에 나타난 관련 문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나머지 문헌을 주제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다.

1. 『黃帝內經』에 나타난 宗筋에 관한 서술

思想無窮，所願不得，意淫於外，入房太甚，宗筋弛縱，發爲筋痿，及爲白淫。故下經曰筋痿者，生於肝使內也。(素問·痿論)

帝曰如夫子言可矣。論言治痿者，獨取陽明，何也。岐伯曰陽明者，五藏六府之海，主潤宗筋，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衝脈者，經脈之海也，主滲灌谿谷，與陽明合於宗筋。陰陽總宗筋之會，會於氣街，而陽明爲之長，皆屬於帶脈，而絡於督脈。故陽明虛則宗筋縱，帶脈不引，故足痿不用也。(素問·痿論)¹⁰⁾

『黃帝內經』 내용 중 宗筋에 관한 언급은 총 3편에 나타나며 『素問·痿論』에서 가장 상세히 다루었다. 첫 번째 문장은 筋痿의 발병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사람이 욕심이나 욕구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불만족이 다른 부분으로 표출되는데, 그로 인해 성생활이 과하면 宗筋이 늘어지게 되고, 宗筋이 늘어지면 筋痿가 발하며 白淫이 된다. 筋痿는 肝이 入房[內]하도록 부리는 것[使]에서 생긴다.¹¹⁾ 정리해 보면 筋痿의 원인은 宗筋의 弛縱이며, 宗筋이 弛縱하는 원인은 入

房의 太過이고, 入房은 肝이 부리는 행위이다. 이때 筋痿는 전신에 미치는 병증이므로 宗筋이 諸筋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入房이 과하면 宗筋을 손상한다는 점 역시 알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은 痿證의 치료에 관한 설명이며 宗筋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宗筋은 束骨과 利機關의 기능을 주관한다. 이때 陽明과 衝脈이 宗筋과 관련지어 설명되었는데 陽明은 五臟六腑의 海로서 宗筋을 濡潤하고, 衝脈은 經脈의 海이며 谿谷으로 스며들게 하는데, 陽明과 衝脈은 宗筋에서 습한다. 陰陽은 宗筋의 모임을 총괄하여 氣街에서 회합하는데, 陽明이 우두머리가 되어 帶脈에 소속되고 督脈과 이어진다.

帝曰寒厥何失而然也。岐伯曰前陰者，宗筋之所聚，太陰陽明之所合也。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此人者質壯，以秋冬奪於所用，下氣上爭，不能復，精氣溢下，邪氣因從之而上也。……(素問·厥論)¹²⁾

『素問·厥論』에서는 前陰을 宗筋이 모이는 곳이며 太陰陽明이 합하는 곳이라 규정했다. 太陰陽明은 水穀에서 얻어낸 氣血이 宗筋으로 공급됨을 설명한 것으로, 앞서 陽明이 宗筋을 潤한다는 문장과 통한다. 이어지는 내용 중 ‘체질이 건장한 사람이 秋冬에 사용한 바[所用]로 奪하여’라는 부분에 대해 注家들은 ‘所用’이 房事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했다.¹³⁾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단 서두에 宗筋이 언급된 것은 그 기능이 房事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岐伯曰宦者去其宗筋，傷其衝脈，血寫不復，皮膚內結，脣口不榮，故鬚不生。……岐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6.

1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5. “使內，謂勞役陰力，費竭精氣也.”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9.

13) 王冰은 “奪於所用，謂多慾而奪其精氣也。”(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8.)라 하였고, 張介賓 ‘必精欲之用，以奪腎中之精氣’(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589.)라 하였다.

伯曰 此天之所不足也，其任衝不盛，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靈樞·五音五味)¹⁴⁾

『靈樞·五音五味』에서는 去勢한 환관의 신체변화를 논했다. 去勢는 宗筋이 제거된 것이며, 宗筋의 제거되면 衝脈이 상하므로, 손상된 血이 회복되지 못해 수염이 나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任衝脈이 不盛하여 宗筋을 이루지 못하면 氣만 있고 血이 없으므로 역시 수염이 자라지 않는다. 이를 통해 宗筋과 衝脈, 血의 盛衰가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고, ‘有氣無血’이라 한 것으로 보아 宗筋의 생리학적 기능이 氣보다는 血과 관련됨을 추론할 수 있다.

2. 部位에 관한 서술

『동양의학대사전』에서는 宗筋을 남성의 외생식기인 陰莖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하지만 『黃帝內經』에서는 宗筋이 가리키는 부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고, 검토 결과 醫家들이 서술한 宗筋의 부위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宗筋의 부위에 대한 견해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생식기에 국한시켜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생식기 외의 부위를 포함한 관점이다.

衝脈與陽明二脈，合於陰器，總聚於宗筋。宗筋，即二核及莖也。(太素·帶脈)¹⁶⁾

人有去其陰莖，仍有鬚髮，去其陰核，鬚必去者，則知陰核并莖爲宗筋也。(太素·任脈)¹⁷⁾

宗筋을 생식기에 국한해 보는 최초의 언급은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다. 楊上善은 宗筋을 ‘陰核(二核)과 莖’이라 하여 宗筋을 음경과 고환으로 정의했

다. 이에 따르면 宗筋은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

유사한 견해를 밝힌 예로 唐宗海는 “莖，陰莖，委，垂卵也…… 究之莖委，乃肝之宗筋，肝脈所繞也。”¹⁸⁾라 하여 肝脈이 유주하는 부위인 陰莖과 辜丸을 宗筋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李梴은 “宗筋，陰器也。”¹⁹⁾라 하여 부속물을 상세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생식기를 가리켜 말했다. 張志聰은 “宗筋者，前陰也。”²⁰⁾라 하여 宗筋을 前陰 부위에 국한해 설명했다.

宗筋，謂陰髻中橫骨上下之堅筋也，上絡胸腹，下貫臍尻，又經於背腹，上頭項，故云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痿論)²¹⁾

宗筋，俠臍下，合於陰器，故云前陰者，宗筋之所聚也。(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痿論)²²⁾

宗筋의 부위를 보다 넓게 인식한 醫家는 王冰이 대표적이다. 그는 宗筋을 陰毛가 난 부분 가운데 橫骨의 상하로 서있는 筋으로 정의했다. 뿐만 아니라 위로는 胸腹, 아래로는 高關節 부위까지 그 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뒤로는 背腹을 지나 頭項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王冰의 경우 人身의 중앙부를 縱으로 연결하는 筋들이 하나의 계통을 이루며, 그중 橫骨 주변의 筋이 宗筋으로서 으뜸이 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上下로 연결된 筋의 계통에 따라 『素問·痿論』에서 束骨과 利機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비슷하게 汪機는 脇部와 小腹의 毒氣가 宗筋을 따라 辜丸에 흘러든다고 설명했다.²³⁾ 宗筋의 부위를 지목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83.

1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08.

16)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16.

17)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19.

18) 王冰, 李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唐容川).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45.

19)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50.

20) 張志聰 著.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51.

2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6.

2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6.

하지는 않았지만 宗筋의 계통이 小腹部 이상으로부터 掌丸까지 이어진 것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楊士瀛은 宗筋이 舌本에서 陰器까지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는데,²⁴⁾ 이러한 설명은 대부분 舌卷, 囊縮의 병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3. 관련된 經絡과 臟腑에 관한 서술

문헌에서 宗筋과 관련된 어 언급된 經脈으로는 衝脈, 陽明脈, 帶脈, 督脈이 있고 臟腑로는 肝, 腎, 脾, 胃가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經脈

문헌에서 宗筋과 가장 밀접하게 설명된 經脈은 陽明脈과 衝脈이다. 대부분은 『黃帝內經』의 문장을 근거로 인용하여 병증 해석에 활용한 것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陽明脈과 宗筋의 관계에 대해 『素問·痿論』에서는 “陽明은 五藏六府之海이며 宗筋을 潤한다.”라고 말했다. ‘海’는 어떤 대상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王冰에 따르면 五藏六府之海는 水穀之海를 뜻한다.²⁵⁾ 즉 五藏六府之海는 水穀이 모였다가 그 精微를 五臟六腑로 공급하는 일종의 창고로 볼 수 있다.

한편 『素問·厥論』에서는 “前陰은 宗筋之所聚이며 太陰陽明之所合이다.”라고 말했다. 太陰陽明之所合에 대해 張介賓은 水穀의 갈무리를 강조한 구절로 해석했다.²⁶⁾ 이를 따르면 太陰陽明之所合은 五藏六府之海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痿論」과

「厥論」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陽明과 宗筋의 관계는 陽明이 水穀精微를 공급하여 宗筋을 濡潤하는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衝脈과 宗筋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素問·痿論』과 『靈樞·五音五味』에 보인다. 『素問·痿論』에서는 衝脈이 經脈之海이며 谿谷에 滲灌함을 주하는데, 陽明과 더불어 宗筋에서 습한다고 하였다. 經脈之海는 五藏六府之海와 마찬가지로 衝脈이 十二經脈을 통해 어떤 것을 모았다가 다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衝脈은 十二經脈之海임과 동시에 血海이므로 모이고 분배되는 대상은 血이라 추측할 수 있다. 谿谷은 肉之大會와 肉之小會를 뜻하는데,²⁷⁾ 張介賓은 관절의 사이가 谿谷의 부위이며 人身의 氣血이 흐르는 곳이라 설명했다.²⁸⁾ 종합해보면 衝脈은 十二經脈의 血을 저장하고 공급함으로써 血이 관절 부위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나 衝脈의 이러한 기능은 陽明이 宗筋을 滋潤하는 것과는 달리 宗筋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때문에 王冰은 “陽明은 輔其外하고 衝脈은 居其中한다.”²⁹⁾ 라는 말로 三者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靈樞·五音五味』에서는 血의 損傷과 形成을 통해 衝脈과 宗筋의 기능적 관련성을 드러냈다. 衝脈과 宗筋의 손상과 형성은 모두 血을 매개로 하는데, 衝脈은 血海로서 十二經脈의 血을 蓄藏하며³⁰⁾ 宗筋은 筋의 우두머리로서 藏血하는 肝의 기능과 밀접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밖에 宗筋과 함께 언급된 經脈으로는 督脈과 任脈이 있다. 『素問·痿論』에 따르면 帶脈과 督脈은

23) 高尔鑫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王石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9. “一人傷寒踰月, 既下, 內熱未已, 脇及小腹偏左腫滿, 肉色不變, 但醫爲風矢所中, 以膏摩之, 月餘, 毒循宗筋流入莖丸, 赤腫如瓠……”(外科理例)

24)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仁齋直指 卷二十三·便毒論』 “嘗怪世俗無知總覺有便毒證狀, 必以爲熱氣所攻, 每薄衣露足, 遂使寒邪乘之, 熱氣轉不得散, 日復一日, 敗精宿血愈聚而愈結焉. 不思一身宗筋, 上絡於舌本, 下聚於陰器, 筋得寒則急, 急則縮, 甚至偏使而不獲伸.”

2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6. “陽明, 胃脈也, 胃爲水穀之海也.”

2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589. “此獨言太陰陽明之合者, 重水穀之藏也.”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3. “帝曰善. 願聞谿谷之會也. 歧伯曰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谿. 肉分之間, 谿谷之會, 以行榮衛, 以會大氣.”

28)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10. “肉之會依乎骨, 骨之會在乎節, 故大節小節之間, 卽大會小會之所, 而谿谷出乎其中. 凡分肉之間, 谿谷之會, 皆所以行榮衛之大氣者也.”

2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6.

30)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86. “水穀之海者, 言水穀盛貯於此, 營衛由之而化生也. 血海者, 言受納諸經之灌注精血於此而蓄藏也, 此固其辨矣.”

宗筋에 접속되고[屬] 이어지는[絡] 관계이며, 별도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宗筋이 늘어지므로 帶脈이 나뉘지 않는다.’라 한 것으로 볼 때 帶脈의 기능은 宗筋의 기능이나 상태에 종속된 관계로 볼 수 있다. 후대 문헌에서도 帶脈, 督脈과 宗筋의 관계를 추가로 설명한 예는 찾기 어렵다.

2) 臟腑

문헌에서 宗筋과 가장 긴밀하게 설명된 臟腑는 肝이다. 宗筋과 肝의 관계를 서술한 내용들은 대부분 陰痿, 筋痿, 癩疝, 遺精과 같은 병증을 해석한 것이거나, 宗筋의 弛縱을 肝의 痿證인 筋痿로 설명한 『素問·痿論』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肝이 宗筋의 生病理과 밀접한 까닭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肝이 筋을 主하고, 宗筋은 筋의 우두머리로서 전신의 筋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肝이 藏血하기 때문이다. 肝血은 인체의 筋을 滋潤하는데 사용되며, 살펴본 것처럼 宗筋의 손상과 형성은 血과 任衝脈의 영향을 받는다. 王冰은 肝을 血海라 말했는데,³¹⁾ 肝이 衝脈과 마찬가지로 血을 저장하고 동시에 전신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肝, 衝脈, 宗筋은 모두 血을 매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足厥陰肝經의 流注가 陰器 주위를 순행하기 때문이다.³²⁾ 唐宗海는 宗筋이 肝에 속하며 肝脈이 陰器를 둘러싼다고 설명했고,³³⁾ 楊士瀛은 陰部疾患이 腎과 관련된 것은 세상이 다 알지만 足厥陰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여 宗筋과 肝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³⁴⁾

肝 외에 宗筋과 관련되어 자주 언급된 臟腑는 腎이다. 腎은 遺精, 夢洩, 疝證과 같은 병증에서 주로 언급되었으며 藏精하는 기능에 관련지어 설명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肝과 함께 언급되었고, 오히려 肝과 厥陰脈의 역할을 강조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陳無擇은 癩疝이 肝에 속하고 宗筋에 연관된 것을 모르고 陰器를 外腎으로만 본다고 질타했고,³⁵⁾ 張從正은 陰莖과 辜丸을 外腎이라 하지만 宗筋은 肝에 속하므로 厥陰脈이 그것을 당겨주지 못하면 伸縮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³⁶⁾

그 외에 언급된 臟腑로는 脾胃가 있으나 脾胃와 宗筋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앞서 陽明을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겠다.

4. 機能에 관한 서술

(1) 房事

『黃帝內經』에서는 宗筋이 房事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素問·厥論』에서 寒厥의 원인으로 秋冬의 房事를 지목하면서 문단의 서두에 宗筋을 언급한 점이나 「痿論」에서 入房이 太甚하면 宗筋이 弛縱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入房이 과하면 宗筋이 손상된다는 것은 房事の 과정에서 宗筋의 기능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趙獻可는 陰器가 洩精之竅이며 宗筋이 主한다고 하였고,³⁷⁾ 王肯堂은 房事の 과정이 陰氣를 접하면 온몸의 精이 陰器로 모여 躍出하게 되는 것

3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6. “肝藏血, 心行之, 人動則血運于諸經, 人靜則血歸于肝藏, 何者. 肝主血海故也.”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2. “肝足厥陰之脈, 起于大指叢毛之際, …… 循股陰, 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

33) 王咪咪, 李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唐容川).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36. “肝主血, 故肝經起于足大指, 而其間即生叢毛, 以爲主血之驗. 陰器, 名爲宗筋, 乃通身筋之所主, 屬肝經, 故肝脈繞于陰器也.”(中西匯通醫經精義·上卷·十二經脈)

34)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腎屬足少陰之經, 囊間濕癢,

謂之腎臟風, 世所共知也, 孰知宗筋聚於陰器, 足厥陰之肝系焉.”(卷十九·腎癢方論)

35) 王象禮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陳無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67. “夫陰癩, 屬肝, 系宗筋, 胃陽明養之, 世多不識, 謂之外腎, 非特名義錯差, 亦使內臟不分, 其可不辨.”

36) 陳柱杓 註釋.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482. “且內經男子宗筋, 爲束骨之會也. 而肝主筋, 畢者, 囊中之丸, 雖主外腎, 非厥陰環而引之, 與玉莖無由伸縮.”

37)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27. “蓋陰器者, 洩精之竅, 主宗筋(夢遺并滑精論)

이라 설명하면서 陰器는 宗筋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다.³⁸⁾ 두 설명에 따르면 陰器의 역할은 精을 洩하거나 躍出하는 것이며, 이는 宗筋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躍’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陰器가 精을 내보내는 것은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射出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추동력을 필요로 하며,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宗筋이 관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張介賓은 陽痿에 관해 설명하면서 “宗筋은 精血의 孔道이며, 精血은 宗筋의 化源을 實하게 한다.”라고 하였다.³⁹⁾ 이때 化源은 변화의 근원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勃起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精血이 陰莖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勃起가 이뤄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宗筋은 精을 배출하는 통로이며, 동시에 精血은 宗筋을 채워 勃起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精의 射出에 추동력이 필요했던 점과 연결해보면, 精血으로 充實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陰氣의 축적이며 精을 射出할 수 있는 추동력(陽氣)을 응집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主束骨而利機關’

『素問·痿論』에서는 宗筋이 ‘束骨’과 ‘利機關’을 main 한다고 설명했다. ‘束骨’은 뼈와 뼈 사이를 묶어주는 것이므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機關’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활동시키기 위한 기계장치’이며, 인체에서는 관절을 의미한다.⁴⁰⁾ 王冰은 “然腰者, 身之大關節, 所以司屈伸, 故曰機關.”⁴¹⁾라 하여 ‘機關’을 허리로

해석했으나, 黃元御는 “諸筋者, 皆屬於節, 骨節聯屬, 則機關便捷, 故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라 하여⁴²⁾ 전신의 骨節로 인식했다. 機關을 허리로 본 것은 가장 큰 관절이라는 대표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허리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利’는 잘 움직이도록 한다는 의미로 관절이 운동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束骨’과 ‘利機關’의 기능은 관절 부위의 안정성과 운동성 유지에 대한 기능이며, 해부학적으로는 인대(ligament)와 힘줄(tendon)의 기능이다. 한의학적으로는 모두 筋의 기능에 속하므로⁴³⁾ 章楠은 宗筋이 一身의 筋을 총괄한다고 설명했고⁴⁴⁾ 李梴은 전신에 발생하는 轉筋을 宗筋의 이상으로 설명했다.⁴⁵⁾

5. 病證에 관한 서술

病證에 관한 후대의 기록은 매우 다양하여 여기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宗筋의 부위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특징적 기술들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若腰脊不舉, 由遠行勞倦, 逢大熱而渴, 陽氣內伐, 熱舍于腎, 水不勝火, 則骨枯而髓減. 蓋陽明併腎, 則腎脂枯而宗筋不調,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全生指迷方)⁴⁶⁾

四肢不舉, 有虛有實. 陽明虛, 則宗筋失潤, 不能束骨而利機關.(醫門法律)⁴⁷⁾

38)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夫五藏俱有火, 其相火之寄於肝者, 善則發生, 惡則爲害, 獨基於他火. 故平人肝氣之剛勇, 充於筋而爲龍極之本也. 其陰器, 既宗筋之所聚, 乃強於作用, 皆相火充其力也. 若遇接內, 從陰氣與合, 則三焦上下內外之火, 翕然而下, 從百體支府, 悉開其滋生之精, 盡趨會於陰器, 以躍出, 豈止腎之所藏者而已哉.”(卷十四·遺精)

39)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景岳全書.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619. “蓋陰陽總宗筋之會, 會于氣街, 而陽明爲之長, 此宗筋爲精血之孔道, 而精血實宗筋之化源.”(卷之三十二·雜證謨·陽痿)

40)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 縮印本(上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7. p.2711. ‘設有機件而能制動的器械’, ‘指人體的關節’

4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216.

42)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上冊·素問縣解). 河北.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0.

43) 楊榮圭 外 2人. 『黃帝內經』의 肉 개념과 관련 用語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8(2). 2015. pp.135-137.

44)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41. “宗筋者, 總一身之筋, 所以主束骨而利機關.”(外感內傷總論·諸痿病證·治法)

45)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23. “轉筋舌卷囊縮危, 陽明胃與大腸, 以養宗筋, 暴吐暴瀉, 津液驟亡, 宗筋失其所養, 故輕者兩脚轉筋而已, 重者遍體轉筋手足厥冷.”

46)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47) 陳熠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喻嘉言). 北京. 中國中醫藥

위 문장들은 宗筋의 이상으로 관절 증상이 유발된 경우이다. 모두 '束骨而利機關'하는 宗筋 기능의 실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全生指迷方』에서는 허리를 일으킬 수 없는 증상을 말했는데 大熱과 갈증 같은 陽明熱證이 발생했고, 熱이 腎陰마저 손상하여 精血이 宗筋을 기르지 못하는 것으로 病機를 파악했다. 『醫門法律』에서는 四肢를 들지 못하는 증상을 陽明虛證에 의한 宗筋의 병증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四肢가 무겁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은 濕病이나 脾病으로 설명되지만, 여기에서는 '束骨'과 '利機關'을 언급했으므로 관절이 헐겁거나 굳신되지 못해 四肢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宗筋이 陽明의 영양을 받지 못해 四肢의 筋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凡肝腎濕熱，以致宗筋弛縱者，亦爲陽痿。治宜清火以堅腎，然必有火證火脈，內外相符者，方是其證。(景岳全書·陽痿)⁴⁸⁾

陰陽虛則宗筋縱。蓋胃爲水穀之海，納食不旺，精氣必虛。況男子外腎，其名爲勢，若穀氣不充，欲求其勢之雄壯堅舉，不亦難乎。(臨證指南醫案·陽痿)⁴⁹⁾

위의 문장들은 宗筋의 이상으로 陽痿가 발생한 경우이다. 『景岳全書』에서는 肝腎의 濕熱로 陽痿에 이른 경우를 말했다. 濕熱은 肝腎의 精血이 運化하는 것을 저애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모시키므로 결과적으로 宗筋이 늘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臨證指南醫案』에서는 宗筋이 水穀의 자양을 받지 못하므로 늘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胃가 宗筋을 濡潤하지 못한 虛證으로 볼 수 있다.

其不御女而漏者，或聞淫事，或見美色，或思想無窮，所願不得，或曾入房太甚，宗筋弛縱，發爲筋痿，而精自出者，謂之白淫。(醫學

入門·夢遺)⁵⁰⁾

多因耽嗜色慾，或服丹石，真氣既脫，熱邪獨盛，飲食如湯消雪，肌膚日削，小便如膏油，陽強與盛，不交精泄，三消之中最爲難治。(東醫寶鑑·消渴)⁵¹⁾

여기에서는 宗筋의 문제로 발생한 遺精, 夢泄을 서술했다. 『醫學入門』에서는 『素問·痿論』의 문장을 인용해 筋痿가 白淫에 이른 경위를 설명했다. 白淫은 성관계가 없이도 精이 스스로 나오는 것으로, 精血을 상하여 宗筋이 늘어진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強中證에 발생하는 精泄을 말했다. 強中은 消渴의 증상 중 하나이며, 色慾과 丹石으로 인해 眞氣가 상하고 熱邪가 홀로 盛한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強中證에 동반되는 精泄 역시 陰虛가 원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 弛縱과 強中은 겉으로는 상반된 양상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모두 傷陰한 것이 원인이며, 그로 인한 宗筋이 손상이 遺精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靈樞·五音五味』에서 房事太甚으로 白淫이 된다고 한 것과 통한다.

所謂勞蒸者，二十四種，隨証皆可考尋……小腹疝痛，筋脈緩縱，陰器自強，其蒸在宗筋。(三因極一病證方論·癆瘵諸症)⁵²⁾

論曰夫勞瘵一證，爲人之大患，凡受此病者傳變不一……心胸噎塞疼痛不舒，蒸在宗筋也。(普濟方)⁵³⁾

癆瘵의 증상을 宗筋과 연관해 설명한 경우이다.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癆瘵에 의한 蒸熱의 종류를 설명했는데 그중 小腹의 통증, 筋脈이 늘어짐, 陰器가 스스로 단단한 것을 蒸熱이 宗筋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普濟方』에서는 心胸이 막히고 답

出版社. 1999. p.242.

48)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景岳全書,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566.

49) 葉天士 著. 臨證指南醫案.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3. p.175.

50)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389.

51)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p.1043-1044.

52) 王象禮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陳無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117-118.

53)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답하며 아픈 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蒸熱이 宗筋에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癆瘵의 주된 원인은 陰虛이다.⁵⁴⁾ 따라서 陰이 손상되어 宗筋을 자양하지 못할 뿐 아니라 蒸熱이 宗筋까지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의 병증은 陰器 뿐 아니라 小腹部와 心胸部에 과급되었으며, 증상의 발현 부위에 보이는 이러한 연속성은 앞서 宗筋의 범위를 胸腹部까지 확장시켜 본 견해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轉筋者，以陽明養宗筋，屬胃與大腸，今暴下暴吐，津液頓亡，外傷四氣，內積七情，飲食甜膩，攻閉諸脉，枯削於宗筋，宗筋失養，必致攣急，甚則卵縮舌卷，爲難治。(三因極一病證方論·霍亂凡例)⁵⁵⁾

囊縮과 舌卷이 宗筋의 병으로 설명된 경우이다. 吐로 인해 津液이 손상되어 陽明이 宗筋을 기르지 못하므로 筋急이 발생하고, 심하면 舌卷과 囊縮에 이른다. 『黃帝內經』에서 舌卷과 囊縮이 설명된 예를 찾아보면 『素問·診要經終論』에서는 厥陰이 끊어지는 증후로 설명했고,⁵⁶⁾ 『靈樞·經脈』에서는 足厥陰의 經氣가 끊어져 筋急이 발생하는데 筋이 모이는 陰器와 脈이 연결된 舌本을 당긴다고 설명했다.⁵⁷⁾ 이러한 설명들을 위의 문장과 연결해보면 舌卷, 囊縮은 足厥陰脈과 肝病의 증상이며, 宗筋이濡潤되지 못해 발생하는 전신의 筋急 중 가장 심한 것이다. 筋病의 惡候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舌本과 陰器는 筋의 根幹을 이루는 兩端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宗筋이 陰器에서 舌本까지 이어진다고 본 견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乳頭厥陰所經，乳房陽明所屬。厥陰者肝也，乃女子致命之地，宗筋之所，且各有囊索。(外科理例·乳癰)⁵⁸⁾

左乳下動脈突出者，宗筋絕也，皆不可治。(仁端錄·胸腹痘形諸名)⁵⁹⁾

宗筋의 문제가 乳房과 胸部로 과급된 병증으로 설명된 경우이다. 『外科理例』에서는 乳房에 대해 厥陰이 지나고 陽明에 속하는 부위이며, 여성에게는 宗筋의 부위라 설명했다. 『仁端錄』에서는 乳房 아래 脈이 돌출된 것을 宗筋이 끊어지는 증후로 판단했다. 足厥陰經脈은 脇肋에 이르며, 乳下는 肝經의 腹募穴인 期門穴의 자리이다. 증상이 좌측에 생긴다는 것 또한 肝과의 관련성을 높게 판단 수 있는 증거이다. 이처럼 乳房의 증상이 宗筋과 연계된 것은 주로 肝 및 足厥陰經脈과의 관계에서 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宗筋과 관련되어 설명된 병증들은 肝腎의 精血이 손상된 경우, 陽明의 虛證으로 宗筋을 滋養하지 못한 경우, 厥陰經脈의 부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부위에 있어서는 陽痿, 遺泄 같은 前陰 증상 뿐 아니라 舌本, 乳房, 小腹에 걸쳐 痛症, 攣急, 噎塞, 癰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주로 足厥陰經脈의 순행부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醫家들이 宗筋의 부위를 넓게 인식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내용들은 대개가 病機 설명에서 宗筋을 이용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료 부위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II. 考察

본론에서는 宗筋에 관한 문헌의 서술 내용을 부위, 기능, 臟腑와 經絡, 病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는 검토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宗筋의 기능적 특성과 부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宗筋의 기능이 全身에 어떻게

54)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p.359. “癆瘵主陰虛”

55) 王象禮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陳無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4.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55. “厥陰終者, 中熱噎乾, 善溺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3. “足厥陰氣絕, 則筋絕, 厥陰者肝脈也, 肝者筋之合也, 筋者聚於陰氣, 而脈絡於舌本也. 故脈弗榮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唇青舌卷卵縮, 則筋先死, 庚篤辛死, 金勝木也.”

58) 高爾鑫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王石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0.

59)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작용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일반적인 筋과 다른 宗筋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宗筋의 부위에 대한 관점 차이가 발생한 까닭을 살펴본 후, 기능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宗筋의 실체에 해당하는 부위는 무엇인지 관정해보고자 한다.

1. 宗筋의 기능적 특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宗筋의 기능은 房事に 관련된 것과 ‘束骨而利機關’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房事와 관련된 기능은 특정 행위와 특정 부위의 운동성을 위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筋과 다르지 않다. 반면 ‘束骨而利機關’은 온몸의 筋과 관절에 작용하는 宗筋만의 특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束骨’과 ‘利機關’을 중심으로 宗筋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관절 운동의 基點

‘束骨而利機關’은 宗筋이 인체의 筋을 조절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주관하는 기능이다. 宗筋이 筋과 관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보면, 첫 번째는 몇몇 醫家들이 설명한 것처럼 宗筋이 胸部와 頭項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宗筋은 인체 중심부의 筋을 연결함으로써 말단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宗筋이 帶脈 및 督脈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帶脈은 모든 經脈을 허리띠처럼 묶어주고⁶⁰⁾ 督脈은 모든 陽脈을 감독하기 때문에⁶¹⁾ 宗筋의 상태가 모든 筋으로 과급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束骨而利機關’이 이러한 기전을 통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宗筋이 그것을 ‘主한다’고 할 때의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主한다’라고 말하는 경우 어떠한 주체는 객체의 生理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뿐만 아니라, 객체에 발생하는 病證의 치료 때에 주된 대

상이 된다. 예를 들어 ‘肝主筋’이라 하면 肝은 筋의 기르고 활동을 관장하는 동시에, 筋病을 치료하는 주요대상이 된다. 그러나 宗筋의 病證과 관련된 문헌 내용을 검토한 결과, 宗筋은 병리기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였을 뿐 筋이나 관절의 치료에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主束骨而利機關’은 宗筋이 모든 筋과 관절의 生病理를 직접 관장한다는 의미보다는 筋과 관절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온몸에 분포된 筋들은 분절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經筋理論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는 筋이 일련의 계통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한다. 筋의 흐름은 부위에 따라 흩어지고 모이는데, 관절은 그 흐름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허리와 골반부위는 筋이 가장 크게 모이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허리 아래로 골반을 따라 좁혀지는 橫骨部는 體幹의 筋이 모이는 꼭짓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때문에 이 부위의 筋은 온몸의 근육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큰 힘을 쓰거나 전신을 움직이는 동작을 살펴보면 상체와 하체는 허리와 小腹部를 중심으로 점대칭, 혹은 선대칭의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王冰이 ‘機關’을 ‘身之大關節’인 허리라고 한 것은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宗筋은 전신으로 筋이 분과되는 꼭짓점이며 운동의 대칭점이 되기 때문에⁶²⁾ 운동 때에 각 부분들이 균형을 잡는 중심점이 되며, 宗筋의 적절한 긴장은 나머지 筋이 운동에 필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즉 ‘束骨而利機關’을 ‘主’한다는 것은 宗筋이 운동과 힘의 基點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관절에 대한 血과 元氣의 공급

『素問·痿論』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宗筋이 ‘主束骨而利機關’한다는 구절과 ‘陽明과 衝脈이 宗筋에서

60)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李時珍).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31. “帶脈則橫圍於腰, 狀如束帶, 所以總約諸脈者也.”(奇經八脈考)

61)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李時珍).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31. “督脈起於會陰, 循背而行於身之後, 爲陽脈之總督, 故曰陽脈之海.”(奇經八脈考)

62) 이러한 측면에서 宗筋은 『素問·陰陽雜合論』에서 말한 ‘太衝’의 개념과 흡사하다. ‘太衝’은 三陰三陽이 분화되는 일종의 기점을 의미하며 발생과 운동의 중심축이 된다. (朴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과주. 집문당. 2005. p.150.)

합한다'는 구절은 한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 陽明은 水穀精微의 공급자로서 그 역할과 관계를 분명하지만 衝脈은 宗筋과 어떤 관계인지 분명치 않다. 衝脈이 十二經脈의 海로서 인체 전반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衝脈과 宗筋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束骨而利機關'의 기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문헌에서는 宗筋과 衝脈의 기능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黃帝內經』에 드러난 衝脈의 기능을 통해 관련성을 추론해 보려한다.

衝脈은 血海이면서 十二經脈之海, 五臟六腑之海⁶³⁾이므로 血을 저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衝脈이 공급하는 血은 陽明이 水穀에서 얻은 氣血과는 차별된 것이며, 인체의 元氣와 精氣를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葉霖은 『難經正義』에서 衝脈이 血海일 뿐 아니라 人身의 元氣를 상승시킨다고 설명했고,⁶⁴⁾ 王九思는 『難經集注』에서 衝脈을 '三焦行氣之府'라 칭했다.⁶⁵⁾ 이러한 견해는 衝脈의 流注를 통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黃帝內經』에 보이는 衝脈의 起始處는 關元,⁶⁶⁾ 氣街,⁶⁷⁾ 腎下⁶⁸⁾, 胞中⁶⁹⁾이

다. 이중 關元和 氣街는 穴位로서 體表에 위치하므로 논외로 하고 胞中과 腎下에 집중해보면, 胞中에 대해 張介賓은 '藏精之所'⁷⁰⁾라 표현했고 楊上善은 腎間動氣가 胞에 있다고 설명했다.⁷¹⁾ 腎下에 관해 注家들의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腎의 기능과 밀접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素問·骨空論』,⁷²⁾ 『靈樞』의 「逆順肥瘦」,⁷³⁾ 「動輸」⁷⁴⁾에서는 모두 衝脈이 少陰脈과 並行한다고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衝脈이 공급하는 血의 개념은 일상적인 신체활동에 쓰이는 수준의 血뿐 아니라 腎이 갈무리하는 精氣나 腎間動氣와 같은 개념이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衝脈이 임신이나⁷⁵⁾ 정신적 영역⁷⁶⁾ 같은 고차원적인 생명활동에 관여되는 것 역시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衝脈의 이러한 기능과 宗筋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素問·痿論』으로 돌아가 보면 "陽明은 五臟六腑之海이며 宗筋을 濡潤하는데, 宗筋은 束

海."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89. "夫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64)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39. "人身陰陽原氣, 皆起於下, 故內經以廣明之後, 即爲太衝, 太衝之地, 屬之少陰, 少陰之前, 乃爲厥陰, 其部爲血海, 常與太衝騰精氣而上, 灌溉陰陽, 斯則人之元氣精氣, 皆起於下也.…… 是太衝者, 以一身之精氣升降言之, 不獨爲血海言之也."

65)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35. "丁曰衝脈起於氣街, 並足陽明之內, 挾任脈之外, 上行至胸中而散. 皆起於兩間, 此者是三焦行氣之府也. 故呂氏云, 一本曰衝者, 此之謂也."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45. "寒氣客於衝脈, 衝脈起於關元, 隨腹直上, 寒氣客則脈不通, 脈不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6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67. "岐伯曰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于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 "岐伯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70) 『靈樞·海論』에서는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4.)라 하여 衝脈의 有餘不足에 따라 스스로의 몸을 인식하는 데에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70)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10. "此男女藏精之所, 皆得稱爲子宮, 惟女子於此受孕, 因名曰胞."

71)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21. "臍下腎間動氣, 人之生命, 是十二經脈根者, 此衝脈血海, 是五臟六腑十二經脈之海也. 滲於諸陽, 灌於諸精, 故五臟六腑皆稟而有之, 是則臍下動氣在於胞也."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67. "夫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其上者, 出於頰頰, 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于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肝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82. "岐伯曰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于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 "岐伯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76) 『靈樞·海論』에서는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4.)라 하여 衝脈의 有餘不足에 따라 스스로의 몸을 인식하는 데에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骨과 利機關을 주관한다. 衝脈은 經脈의 海로서 谿谷에 滲灌하는데, 陽明과 더불어 宗筋에서 습한다.”라고 했다. 宗筋이 衝脈과의 관계로 언급된 것은 陽明과 함하는 곳이 宗筋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체가 어떤 구조를 가질 때 마땅한 목적성과 이유가 있다고 전제하면 衝脈이 宗筋에서 습하는 것은 衝脈이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고자 할 때 宗筋의 기능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衝脈이 필요로 하는 宗筋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문장에 설명된 ‘束骨’과 ‘利機關’이다. ‘束骨’과 ‘利機關’은 筋이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이 衝脈의 활동에 필요한 이유는 관절이 元氣를 공급해야 하는 要處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節을 神氣가 遊行하고 출입하는 곳이라 하였다.⁷⁷⁾ 또한 『靈樞·邪客』에서는 五臟에 邪氣가 들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여덟 개의 큰 관절을 논하면서 ‘八虛는 機關의 자리로 眞氣가 지나는 곳이며, 血絡이 遊行하는 곳’이라 말했다.⁷⁸⁾ 즉 관절은 神氣가 유행하는 곳으로 五臟의 候가 드러나며, 그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眞氣와 血絡이 흘러들어야 한다. 이는 元氣와 血을 운행하는 衝脈의 기능과 상관되며 ‘滲灌谿谷’의 의미와도 통한다. 즉 宗筋은 관절이 안정성과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衝脈이 관절(谿谷)에 元氣와 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痿論」의 문장은 “宗筋이 束骨과 利機關을 주관하므로 衝脈이 元氣와 血을 관절에 공급하고자 宗筋에서 陽明과 만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宗筋의 部位

(1) 部位에 대한 두 가지 관점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2. “所言節者, 神氣之所遊行出入也, 非皮肉筋骨也.”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00. “凡此八虛者, 皆機關之室, 眞氣之所過, 血絡之所遊, 邪氣惡血, 固不得住留. 住留則傷筋絡骨節, 機關不得屈伸, 故病攣也.”

본론에서 확인한 것처럼 宗筋이 가리키는 부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陰器를 위주로 보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陰器를 포함해 보다 확대된 부위로 보는 견해이다. 둘 중 어떠한 견해가 宗筋의 실체에 가까운 것인지 판별하기에 앞서 각각의 견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근거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陰器에 국한된 관점

宗筋이 陰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靈樞·五音五味』에 기술된 환관의 신체변화는 宗筋을 생식기에 국한하는 근거가 된다. 古人들 역시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 단순한 음경 손상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經文에서는 고환 손상에 의한 전신적 신체변화를 宗筋의 손상으로 해석했으므로 이에 근거했다면 宗筋의 부위를 생식기 위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宗筋이 음경과 고환에 국한되는지는 자연스럽게 여성에게도 宗筋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와 결부된다. 宗筋을 생식기에 한정할 경우 여성의 子宮과 마찬가지로 宗筋은 남성에게만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반면 생식기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宗筋도 생식기 부위에 모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⁷⁹⁾ 그런데 한의학에서 筋의 개념은 현대의 해부학에서 말하는 근육(muscle)과는 차이가 있으며, ‘運動’이라는 속성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⁰⁾ 남녀의 생식기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외관상 분명한 운동성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운동성을 위주로 판단했다면

79) 章楠은 남녀에게 모두 宗筋이 존재하며 前陰에서 모인다고 주장했다.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32. “男女皆有宗筋, 以聚于前陰.”)

80) 예를 들어 『素問·上古天真論』에 기록된 연령별 신체 변화를 살펴보면, 筋과 관련된 표현으로 ‘筋骨勁強’, ‘筋不能動’, ‘筋骨解墮’가 보이는데 筋의 기능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견고함(勁強, 解墮)과 운동성(能動)이다. 이 중 견고함에 관한 내용은 모두 骨과 함께 언급되었으며, 筋에만 해당되는 기능은 운동성이다. 앞서 宗筋의 기능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利機關’이라 하여 운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생식기를 筋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에 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 陰器 外로 확장된 관점

宗筋이 陰器에 국한되지 않고 橫骨의 위쪽인 小腹部를 포함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는 『素問·厥論』의 문장이다. 前陰을 ‘宗筋이 모인 곳 [宗筋之所聚]’이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前陰은 宗筋이 모이는 곳일 뿐 宗筋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宗筋은 前陰 이외의 부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宗筋과 관련된 經脈 역시 宗筋을 확대된 부위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 宗筋과 관련지어 기술된 것은 陽明脈, 衝脈, 督脈, 任脈, 帶脈이다. 이 중 衝脈, 督脈, 任脈의 경우 모두 會陰部에서 出하여 上行하므로 두 주장 중 하나만을 지지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陽明脈은 前陰을 지나지 않고 다리로 주행하며,⁸¹⁾ 帶脈 역시도 허리 부위에 횡으로 운행한다.⁸²⁾ 따라서 經脈의 流注部位를 중심으로 해석했다면 宗筋이 陰器 外의 부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외에 宗筋의 病證 역시 부위를 생식기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宗筋의 병증은 인체의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며 증후간의 연관성을 귀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다 넓은 부위를 宗筋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2) 기능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정한 宗筋의 部位

宗筋의 부위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宗筋이 외견상 확연히 분간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衝脈과 陽明이 宗筋에서 合한다’와 같은 설명은 육안으로 파악했다기보다는 기능적 연관성을 통해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宗筋의 부위는 외형적 관찰 뿐 아니라 기능적

관찰이 결합된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부위 판정에 있어서도 기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宗筋의 기능 중 ‘主束骨而利機關’은 온몸의 筋과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며, 앞서 고찰했듯이 허리와 少腹部가 전신의 筋운동이 발생하는 중심점이 된다. 또한 이 기능은 衝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衝脈과 만나는 氣街穴은 宗筋의 부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主束骨而利機關’을 위주로 판단할 때 宗筋의 부위는 氣街穴을 중심으로 한 小腹部로 볼 수 있다.

宗筋의 또 다른 기능인 房事는 기본적으로 陰器와 밀접하다. 앞서 陰器를 위주로 부위를 이해한 관점은 『靈樞』에서 언급된 去勢로 인한 변화와 생식기의 운동성을 위주로 판단한 결과라 추론했는데, 이는 모두 남성의 房事와 관련된다. 그러나 인체 전반으로 확대해 바라보면 房事는 단순히 陰莖이나 그 주변의 筋을 운동시키는 행위가 아니며, 그 역시 精氣 및 元氣의 공급과 무관할 수 없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남녀의 생식 능력을 설명할 때 任脈, 衝脈, 腎氣의 盛衰를 꾸준히 언급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房事는 精氣나 元氣를 생산하고 운용하는 인체의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房事와 연계된 宗筋의 기능 역시 衝脈이 元氣나 精氣를 운행하는 기능과 무관할 수 없다.

宗筋의 부위는 그 기능을 房事に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束骨’, ‘利機關’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房事와 관련된 기능 또한 衝脈과 함께 작용하는 전신적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宗筋의 부위는 氣街穴을 중심으로 한 小腹部의 筋으로 보는 것이 실체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IV. 結論

본 연구는 宗筋이 가리키는 부위와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역대 문헌에 나타난 관련 내용 검색하였으며 부위, 기능, 관계된 臟腑와 經絡, 병증으로 분류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宗筋의 기능이 인체 전반에 미치는 작용을 고찰하고, 부위에 관한 논란이 발생한 근거와 의미를 알아본 후 宗筋이 가리키는 부위의 실체는 무엇인지 고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79-80. “胃足陽明之脈, 起於鼻之交頰中, …… 起于胃口, 下循腹裏, 下至氣街中而合, 以下髀關, 抵伏兔, 下膝臑中, 下循脛外廉, ……”

82) 전국한의학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2010. p.80. “帶脈者, 起於季脇, 廻身一周.”

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宗筋의 기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房事에서 精을 洩하는 기능이다. 宗筋은 血의 공급을 통해 陰器를 발기시키며, 精을 射出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둘째는 束骨과 利機關이다. 이는 全身의 筋을 주관하는 기능으로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유지함을 뜻한다.
2. 宗筋이 束骨과 利機關을 주하는 것은 모든 筋과 관절의 生理, 病理를 직접적으로 주관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인체가 운동할 때의 중심점이며, 동시에 힘의 基點이 됨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束骨과 利機關의 기능은 衝脈이 血과 元氣를 인체에 공급하는 역할과 매우 밀접하다. 관절은 血과 元氣가 공급되어야 하는 要處이며, 宗筋은 衝脈이 血과 元氣가 溪谷에 滲灌될 수 있도록 돕는다.
4. 문헌에 언급된 宗筋의 부위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陰器에 집중한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橫骨 이상으로 확장된 관점이다. 두 가지 견해는 經文의 해석, 經脈의 流注, 남녀의 前陰에 대한 관점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을 수 있다.
5. 宗筋의 부위에 대한 인식은 宗筋의 기능에 관한 인식과 결부된다. 宗筋의 기능을 束骨, 利機關으로 인식하고 衝脈과 관련해 보면 宗筋의 부위는 氣街穴을 포함한 小腹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陰器에 한정된 관점은 房事 과정에서 보이는 陰莖의 운동성에 국한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6. 衝脈 뿐 아니라 陽明과 肝 역시 宗筋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陽明은 水穀精微를 공급함으로써 宗筋을 滋潤하는 역할을 하며, 肝은 諸筋과 血을 주할 뿐 아니라 足厥陰經脈이 陰器를 순행한다는 점에서 宗筋의 생리와 병증에 긴밀히 연관된다.
7. 宗筋과 관련된 병증의 기전은 肝腎의 精血이 손상된 경우, 陽明의 虛證으로 宗筋을 滋養하지 못한 경우, 厥陰經脈의 문제인 경우로 구분된다. 병증의 부위는 前陰외에도 舌本, 乳房, 小腹에 걸쳐 나타나며 주로 足厥陰經脈의 순행부위와 관련된다.

宗筋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남성의 성기능과 관련된 병증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宗筋은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주관하며, 血과 元氣를 공급하는 衝脈의 기능과 밀접하다. 따라서 宗筋의 개념을 특정 병증에 국한하기보다는 전신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생애 첫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7R1C1B5076769).

References

1. Hong WS ed.. Jeonggyohwangjenaegy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2.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3. Wang B ed.. Zhongguangbushu Huangdineijing Suwen. Beijing. Zhongyi Gujichubanshe. 201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4. Sagou M. annot.. Huandineijingtaishu. Community of Neijing in Japan. 2010.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5.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annot.. Lei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0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6. Huang YY. Huang Yuanyu Yishe shiyizhong (Suwenxianjie). Hebei. People's Medical

- Publishing House. 1990.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上冊·素問縣解). 河北. 人民衛生出版社. 1990.
7. Zhang N. Lingsu Jiezhuleibian. Zhejiang. Zhejiang Kexuejishu Chubanshe. 1986.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8. Zhang ZC. Huangdineijinglingshuzhiju. Beijing. Xueyuan Chubanshe.
張志聰 著.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9. Park CK. Hyunto Hwangjenegyong Somun Jusuk. Paju. Jipmundang. 2005.
朴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10.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ed.. Nan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10.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2010.
11. Kim YJ, Yoon CY. Nanjing Yeongujipsung. Daejeon. Jumin Publisher. 2007.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12. Wang XL. Tangsongjinwuanmingyiwuanshudacheng. (Jin Wuze).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5.
王象禮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陳無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13. Jin JP ed.. Collection of Jinyuansidajia. Seoul. Beobin Publisher. 2007.
陳柱杓 註釋.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14. Zhao XK. Yiguan. Beijo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5.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annot.. Jingyuequanshu. Seoul. Beobin publisher. 2007.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景岳全書. 서울. 법인문화사. 2007.
16. Li C original work. Jin JP trans.. Sindaeyoek Pyunju Yixueremen. Seoul. Beobin Publisher. 2009.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17. Heo J original work, Lee NG annot.. Dongyibogam. Seoul. Beobin publisher. 2011.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18. Liu CH. Mingching mingyiwuanshudacheng (Li Shizhe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李時珍).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9. Gao EX. Mingching mingyiwuanshudacheng (Wnag Shisha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高尔鑫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王石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0. Jin Yi. Mingching mingyiwuanshudacheng(Yu Jiaya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陳熠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喻嘉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1. Ye TS. Linshengzhinanyian. Hongkong. shangwu yinshuguan Xianggang fenguan. 1973.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3.
22. Wang MM. Mingching mingyiwuanshudacheng (Tang Rongchua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2.
王咪咪, 李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唐容川).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23. Physiology professors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ed.. Physiology of Oriental Medicine. Paju, Kyunggi. 2014.

- 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동의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24. Dept. of Internal Medicine of Kindney System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ed.. Internal Medicine of Kindney System. Seoul. Gunja Publisher. 2011.
진국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腎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11.
25. Qin GZ. Zhonyi Nankeshe. Sanheshi. Kesheshuchubanshe. 2017.
秦國政 主編. 中醫男科學. 三河市. 科學出版社. 2017.
26.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lhakdaesajeon.(9)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27. Hanyu Dacidian Bianzuan weiyuanhui. Hanyu Dacidian(tabloid edition). Shanghai. Hanyu Dacidian chubanshe. 1997.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 縮印本(上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7.
29. Wang Q. On Theory of Male External Genitals. China Journal of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and Pharmacy. 21(10). 2006.
王琦. 宗筋論. 中華中醫藥雜誌. 21(10). 2006.
30. Cai YQ. Tongbu Qijingfa Zhiliao Nanxing Zongjinbing.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0. 1989.
蔡漁琴. 通補奇經法治療男性宗筋病. 遼寧中醫雜誌. 10. 1989.
31. Jia HH, etc. Yangwei “Tanyuhujie Dusunzongjin” Lilunsiwei Yu Chuangxin.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4). 2013.
賈海驊 外 2人. 陽痿“痰瘀互結, 毒損宗筋”理論思惟與創新.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19(4). 2013.
32. Kim SI, Song CH. The Literary Study on Chongmai. The Journal of Korea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7(2). 2000.
金成一, 宋春浩. 衝脈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7(2). 2000.
33. Lin QJ. Chongmai Gudaiwenxian Yanjiu. Beijing Zhongyiyao dashe. 2011.
林琪家. 衝脈古代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34. Yang YK. A Study on the Meaning of 'Yuk' and Relevant Terminologies in Huangdineiji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8(2). 2015.
楊榮圭 外 2人. 『黃帝內經』의 肉 개념과 관련 用語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8(2). 2015.
35.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Portable Hard Disk] Ver.2.0. Hongkong. Dizhi wenhua chuban youxiangongsi. 2016.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